

[당원용]

“결론은 노무현입니다”

도전
그리고
희망



- 노무현 홈페이지 www.knowhow.or.kr
- 새천년민주당 부산 북·강서을지구당(위원장: 노무현)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342-19, 2층 Tel 051)971-0001 Fax 051)971-0117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5 금강빌딩 3층 Tel 02)3775-1663 Fax 02)3775-1664



탄탄대로도 바른길이 아니면 끝내 가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신뢰와 약속을 저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가시밭길도 그것이 정도라면 과감히 선택했습니다.
희생과 불이익을 감내하며 원칙과 대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도전해왔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희망을 일구었습니다.
역경과 좌절은 오히려 힘찬 도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 석 자 위에는
신뢰가 바탕이 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있고,
동과 서, 남과 북이 하나되는 통합된 세상이 있습니다.

노무현,
우리는 그 이름을 희망이라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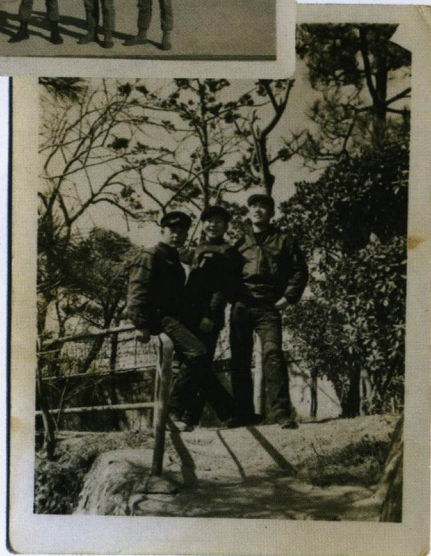
할 말은 당당히 하던 소년



초등학교 6학년 시절,
담임선생님의 '하면 된다' 는 말씀에
선거에 나가 전교학생회장이 된 소년 노무현.
옳지 못한 일 앞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펴는 소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붓글씨 대회에서 편파적인 대우를 받아
2등으로 받은 상을 반납하기도 했고,
3·15부정선거를 앞둔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이라는 작문을 강요당하자,
이에 반대하며 '백지동맹' 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하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는 사람.
노무현은 확실히 남다른 인물입니다.



도전은 나의 운명



-사법연수원 시절, 동료들과 함께

언제나 변화에 앞장섰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자신감의 원천은 배심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먹으면 꼭 이루어내는 노력과 신념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생각하여
장학금도 받고 은행에 취직하기 위해
부산상고에 진학하여 졸업을 했지만,
세상은 그에게 쉽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법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정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거의 10년만에
당당하게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사가 됩니다.
그의 지난 역정을 관통해온
끝없는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무현은 흔히 '입지전적 인물'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무척 어색해 합니다.
입지전적 인물이 많은 세상보다는
소수 특권층이 부와 명예를 독점하는 사회구조가 바뀌어
공정하게 경쟁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누가 피고인이고 누가 변호사인지.....

81년 우연히 변론을 맡게된 학생 시국사건.
무자비하게 고문을 당한 피고인들을 만나
시커멓게 변해버린 발의 상처를 본 순간,
'잘 나가던 변호사'의 시절은 끝이 났습니다.

시국·노동사건을 무료 변론하는 인권변호사.
노무현은 그렇게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변해나갔습니다.

마침내 법정에서 펼쳐지는 그의 변론은
단순히 피고인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확신이 담긴 자신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기득권을 송두리째 내던진 그의 변론 앞에서는
이미 피고인과 변호인의 구별이 무의미했습니다.

그해 6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87년 6월의 여름은 노무현에게
잠시 앉아 쉴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거의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장,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
길다란 직함만큼이나 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노무현은 6월항쟁의 한가운데에 서있었습니다.

6·29선언으로 고귀한 승리가 확인되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9월 대우조선 시위 사건으로 구속이 되고
변호사 업무에도 정지처분이 내려졌지만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그의 열정은,
더욱 뜨거워지지만 할 뿐이었습니다.



“몽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87년 대통령선거가 야권의 패배로 끝난 후,
 노무현은 더 큰 일을 위해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상대는 5공의 핵심 실력자인 허삼수씨.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상대로 전망했지만
 그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당시 야권은 분열의 후유증으로 인해
 서로간에 깊은 골이 패여 있었지만,
 노무현은 곧바로 야권통합운동에 나섰습니다.

김영삼 총재 등 지도부가 금기시하는 사안이라
 대부분의 의원들이 주저하고 망설였지만
 그는 당당하고 소신 있게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반대와 회유, 노골적 압력 등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는 결코 집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서회합의 기수’ 노무현,
 대통합을 향한 대장정의 깃발을 높이 올린 것입니다.

“대정부질문은 저렇게 하는거야”

88년 13대 개원국회의 사회·문화 대정부질문.
노무현의 사자후에 본회의장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야당의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아직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케이크의 크기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희생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격적인 내용의 연설이었지만,
그 마디마디에는 소외된 서민계층에 대한
진한 애정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까지의 국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의정활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연설이 끝난 후 당시 평민당 김대중 총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정부질문은 저렇게 하는거야”



이보다 더 훌륭할 수는 없다

5공비리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
그것은 노무현을 위해 준비된 장치처럼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질문과 논리정연한 추궁.
무엇보다 돋보인 것은 그의 뜨거운 가슴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노무현의 증인 신문을 보기 위해
때론 일손을 멈추고 때론 뜯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 또한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다.
'역시 노무현!', '속시원하다' 는 탄성이 이어졌습니다.

불신과 불만의 대명사였던 정치권에
그때처럼 격려전화가 쇄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청문회 스타 노무현의 탄생. 그것은 분명
우리 정치의 지평을 한 차원 높인 사건이었습니다.



모두가 '예'할 때, '아니오'하던 소신

90년 1월, 민정·민주·공화의 3당합당.

정치인으로 살아남으려면

따라가야 한다는 온갖 희유와 압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눈 한번 질끈 감고

'예' 하며 따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재선·삼선은 물론

더 큰 정치적 성취가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탄탄대로의 길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당하게 '아니오'를 말했습니다.

비호남권 야당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 신뢰에 등을 돌리면

국민들은 정치에 등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의 신뢰를,

벗고 신는 신발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뢰란 한겨울의 문풍지 같은 것입니다.

한번 뚫린 작은 구멍은

더 커지면 커져지, 좀처럼 작아질 수 없습니다.

한번 약속을 배반한 정치인은

기만과 허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마련입니다.



통합의 주역이 통합의 최대 피해자?

불과 8개 의석의 미니정당으로 남은 민주당.
 입으로는 야권통합을 소리 높여 외쳤지만
 내심 DJ와의 결합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통합이 국민적 요구이긴 하지만
 영남권 후보로서는 낙선이 불을 보듯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은 소이를 버리고 대의를 선택했습니다.
 부산 출신 현역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줄기차게 야권통합을 주장하면서
 영남권 위원장들의 격렬한 반대를 설득한 끝에
 마침내 91년 통합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통합민주당의 출범으로
 대선을 앞둔 김대중 총재는
 천군만마의 힘을 얻게되었지만,
 통합의 주역 노무현은 다음 14대 총선에서
 참담한 낙선의 고배를 들어야 했습니다.





야당사에 기록될 최연소 최고위원

최고위원
최다아연 53%
2차 決選서 53% 획득 金후보

金元基씨
 柳曉相씨
 趙世衡씨
 權魯甲씨
 盧武鉉씨
 韓光玉씨
 慎順範씨
 李富榮씨

1993년 12월 29일
 1993년 12월 30일
 1993년 12월 31일

김대중 총재가 정치일선을 떠난 뒤,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게 된
 93년 민주당 전당대회.
 노무현은 과감히 최고위원선거에
 도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며

반신반의했지만

그는 8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5위로 당선되었습니다.

야당사상 최연소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처럼 전국의 대의원들로부터
 골고루 지지를 받은 인물도 없었습니다.
 통합을 위한 그의 헌신과 희생을
 절대다수의 대의원들이 높이 평가해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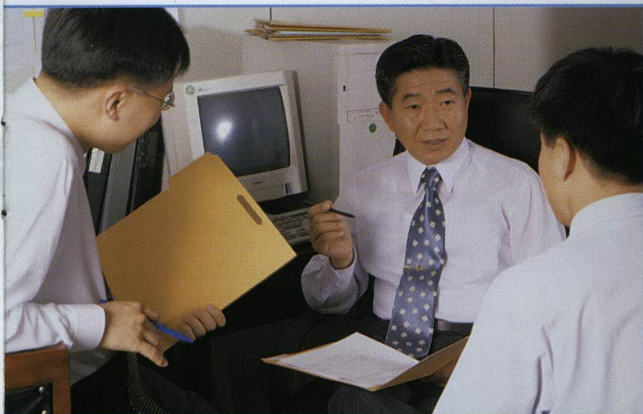
야권통합의 과정과 낙선의 아픔을 겪으면서
 개혁을 외치던 소장의원 노무현은 어느 덧
 합리주의와 균형 감각을 갖춘
 중진의 지도자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명실상부의 본보기, '연구'하는 '연구소'

1993년에 노무현이 개설한 지방자치실무연구소.
흔히 접할 수 있는 정치인의 사랑방,
계보의원들의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본을 세우고
지방시대의 개발전략을 연구하는 연구소였습니다.

뜻 있는 선배·동료의원들의 도움도 중요했지만,
명과실이 상부한 연구소를 만들겠다는,
노무현과 연구원들의 실용주의적 연구활동은
95년 지방선거에서 큰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소는 중앙당의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했던,
후보들에 대한 연수·교육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지방시대의 주역이 된
훌륭한 인재들을 수도 없이 배출하는 등
95년 지방선거 승리의 큰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떨어져도 인기가 오르는 정치인

지방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이 된 95년 6·27선거.
노무현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민자당의 아성인 부산에서 후보 난을 겪자
과감히 시장선거에 도전, 박빙의 승부를 펼쳤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의 초·중반,
노무현이 여론조사의 선두를 유지하자
사람들은 새로운 신화의 창조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막판에 불어닥친 지역감정의 폭풍에
그는 안타까운 패배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또다시 지역감정의 희생양이 된 그의 도전에
온 국민은 뜨거운 박수로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지역의 선거에서는 낙선을 했지만
이미 그는 전국적인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감동, TV 찬조연설

97년 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통합추진회의가 소멸되자,
 노무현은 새정치국민회의에 합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정권교체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 그는 TV 찬조연설에 나섰습니다.
 부산 출신으로서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그리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그것은 동서화합의 당위성을 역설한
 특별한 감동이었습니다.

찬조연설 중 '시청률 1위' 라는 사실이 말해주듯이
 이 연설은 대선 판도를 새로운 국면으로 올려놓으면서
 정권교체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정치 1번지에서 또다시 정치적 사지로



98년 7월 치러진 종로보궐선거.
노무현은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가 정치1번지 종로에서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의 마음은 편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빛을 진 듯한 기분에
항상 답답한 체증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던 99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영남권에서 각종 집회를 열어 지역감정을 선동하자
노무현은 마침내 부산행 결단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정치를 하나?’ 는 반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길을 막아서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와 민족을 생각하는 위대한 결단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려야 한다’

국회의원이 된 이래 지금까지
 노무현은 갈등의 현장을 술하게 다녔습니다.
 독재시대에는 노동자의 벗으로!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는
 타협을 증시하는 조정자로!
 그는 현장의 정치인, 갈등의 중재자였습니다.

98년 현대자동차의 구조조정 반대 파업 당시에는
 1주일 치의 옷가지를 싸들고 현장에 내려가
 노동자들을 설득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삼성차살리기 시민운동 행사에 참석



▲ 현대자동차 노사합의 중재



▶ 대우차 서포터 광고모델

삼성자동차 문제로 부산경제가 어려워졌을 때에도
 그는 정상자동차와 해외매각의 성사를 위해,
 청와대는 물론 많은 시민단체를 발로 뛰다니며,
 설득과 이해를 구해 정상화시켜냈습니다.

또 2001년 대우차 분규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노동자로부터 계란세례를 받으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으로 중재를 이끌어내려 했고,
 그 결과 대우차 서포터 광고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화하는 장관, 낮은 자세의 리더십

해양수산부 장관 8개월!

비록 재임기간은 짧았을지 모르지만

노무현이 해양수산부에 남긴 흔적은

어찌면 바다보다 넓고 깊었을지 모릅니다.

장관이 직접 부하직원의 책상을 찾아가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하는가 하면,

일방적 지시는 쌍방향 대화로 대체되었고,

권한의 합리적 위임과 분산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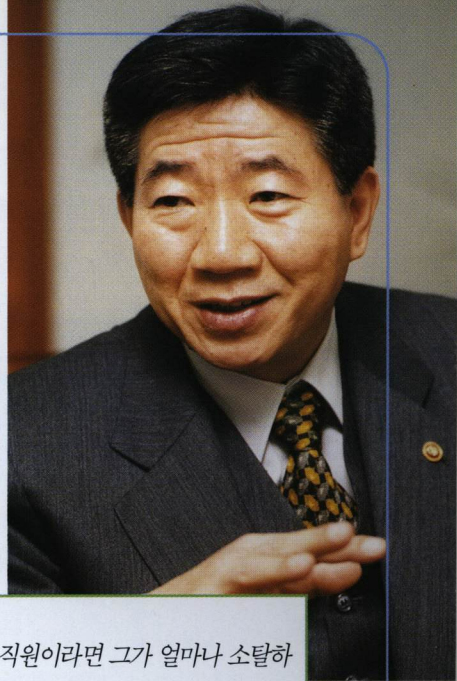
자율성은 최대한으로 신장되었습니다.

낮은 자세로 대화하는 노무현 리더십!

변화의 새 시대에 걸맞게

공직사회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한,

탁월한 리더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노장관을 만나본 직원이라면 그가 얼마나 소탈하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고생이 많은 부서직원들과는 바쁜 외중이라도 짬을 내어 격의 없이 술잔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술자리에서는 과장보다 과원들이 더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출근 시 수위가 나와서 인사하는 관행도 없어졌습니다. 직원들과 복도에서 부딪치면 노장관이 먼저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도 부하로서 느끼기에 싫지 않은 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 사무관인 김윤호씨가 조선일보의 독자투고란에 기고한 내용중 일부입니다.

“

노무현은 불안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따져보자. 386출신 조선의원들에게 당의 보스 눈치를 살피지 말고 ‘튀 것’을 요구하며 왜 노무현에게는 ‘돌출행동’이라고 욕을 하는가? 언론개혁에는 동의하면서 왜 거대 언론권력에 맞서 소신을 피력하는 정치인은 음모론으로 몰아 붙이는가? 지역감정이 망국병임을 인정하면서 지역감정을 끝장내자고 온몸으로 실천하는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뜨리는가? 한국인들이 정말로 원하는 리더십은 시늉만 내는 ‘처세술’인가? 리더십은 결코 테크닉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다.

강준만의 ‘노무현과 국민사기극’ 중에서

”

“언론개혁은 곧 권언유착의 청산”

수구족벌언론과의 싸움은
정치인 노무현의 숙명이기도 했습니다.

거대언론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는 것은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인에게는 힘겨운 저항입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족벌언론의 폐해를 고발, 언론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스스로가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염된 펜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차기 정권까지 좌우하려는 특정 언론이 있는 한,
술한 피와 희생으로 쟁취해온
민주화와 정권교체의 숭고한 역사마저
하루아침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www.nosamo.org

당선보다 아름다운 패배가 있었습니다.

2000년 4월의 16대 총선에서

노무현이 보여준 감동의 드라마가 그것이었습니다.

‘바보 노무현’, ‘우리들의 노짱’

노무현의 홈페이지는 격려와 찬사로 마비되었습니다.

‘농부가 어떻게 밭을 밟하겠습니까?’

노무현의 대답에는 오히려

부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깊이 담겨있었습니다.

마침내 전국의 네티즌들이 대전에서 모여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탄생되었습니다.

현재 5천명에 육박하는 자발적 회원

국내 13개 지부에 해외지부까지,

명계남 회장, 문성근 고문을 비롯한 회원들은

오늘도 동서화합을 위해 전국을 누빈다.

정치인 최초의 자발적 팬클럽, 노·사·모

그것은 분명 우리 정치사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희망이 있는 나라를 향해

힘은 들었지만 뜻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고단한 길이었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발전을 믿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민족의 장래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도전,
그것이 바로 노무현이 걷는 길입니다.

이제 그가 더 큰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반칙으로 범위에 군림해온 특권층의 시대가 아니라
원칙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보통사람의 시대로,
지역과 남북과 계층이 하나되는 국민통합의 시대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고 싶은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향해
노무현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노무현이 걸어온 길. 그 길 위에 서면 희망이 보입니다.

- 1946년 경상남도 진영에서 출생
- 1959년 대창초등학교 학생회장
- 1960년 대창초등학교 졸업
- 1963년 진영중학교 졸업
- 1966년 부산상고 졸업
- 1968년 육군 입대
- 1971년 육군 만기 제대
- 1973년 결혼
- 1975년 제17회 사법고시 합격
-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78년 변호사개업
- 1981년 부림사건 변론 이후 인권변호사
- 1985년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장
- 1987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부산본부 상임 집행위원장
6월민주항쟁 주도
대우조선 사건으로 구속, 변호사 업무 정지 처분
-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통일민주당, 부산 동구)
5공비리특위 활동
- 1989년 국회 노동위원회 활동
- 1990년 3당합당 반대, 민주당 창당 주도
의원직 사퇴

1946~2001~

- 1991년 신민·민주야권통합 주도(통합협상 대표)
통합민주당 대변인
- 1992년 제14대 총선 출마(민주당, 부산 동구)
조선일보 왜곡보도 관련 소송에서 승소
-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청년특위위원장, 물결유세단 단장
- 1993년 통합민주당 최연소 최고위원
지방자치실무연구소 개소
- 1995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
- 1996년 제15대 총선 출마(민주당, 서울 종로)
통추회의 활동
-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제15대 대통령선거 찬조연설(시청율 1위)
수도권 특별유세단(파랑새유세단) 단장
- 1998년 종로구 보궐선거 출마·당선(새정치국민회의)
현대자동차 파업 중재
- 1999년 종로구 지역구 포기과 부산 출마 결단,
동남특위위원장
- 2000년 제16대 총선 출마(새천년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 2000년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발족
- 2000년 해양수산부장관
- 2001년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최고위원